

라피스 라줄리 로드(Lapis Lazuli road): 실크 로드 이전의 실크 로드* **

박 성 진***

국문초록

이 글은 라피스 라줄리를 중심으로 고대문명 간 장거리 교역에서 드러나는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더스문명, 엘람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이집트문명 등 고대문명의 엘리트들이 사치품으로 사용하였던 라피스 라줄리는 모두 중앙아시아의 힌두쿠시 일대에 분포한 고대 광산에서 채굴되었고,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운송된 거리가 최대 4,000km 이상이다.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광역 교역망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실크 로드가 처음 열렸다고 여겨지는 기원전 2세기보다도 훨씬 빠른 시기에 실크 로드는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자는 이를 라피스 라줄리 로드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라피스 라줄리가 이르는 교역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는 육로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해로이다. 초기에는 라피스 라줄리 교역이 주로 육상 교역로를 따라 이뤄지다가, 교역량이 증가하고 국제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후기에는 안전하게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해상교역로가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역 패턴을 볼 때, 메소포타미아 저지대의 일차국가와 이란 고지대의 이차국가 간에는 비대칭적 관계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생태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장거리 교역로의 변동과정에서 보듯이, 막대한 식량 잉여 자원을 거머쥔 일차국가의 수요변동에 따라 이차국가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다시 이차국가의 산업구조 재편됨에 따라 원료공급지에서 공급되는 품목과 양이 정해지는 일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이처럼 각각의 개별 문명은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상호작용 속에 유지되고 또 한 문명의 흥망성쇠가 다른 문명의 흥망성쇠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다. 소비지 → 중개지 → 공급지 순으로 연동되는 고대 세계 분업체제는 중심부 → 반주변부 → 주변부의 순으로 연동되는 근대 세계 분업체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1990년부터 국제 학계에서는 세계체제가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인 5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논의된 라피스 라줄리 로드 사례는 세계체제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즉 기원전 3000년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주제어] 라피스 라줄리, 문명, 교역, 세계체제, 실크 로드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7일 개최되었던 <제50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 전담 조교수 / psjquina@live.co.kr

| 목 차 |

I. 서 론	IV. 고대 장거리 교역의 구조
II. 라피스 라줄리의 정의 및 산지 특성	V. 결 론
III. 라피스 라줄리 유물의 시공간적 분포와 교역로	

I. 서 론

주지하듯이 실크 로드라는 말은 19세기 후반기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창안한 용어이다. 그는 한(漢)나라와 로마 간의 비단을 매개로 한 교역로를 실크 로드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한대 이후부터 중국 서쪽 변경에서 타림분지를 거쳐 파미르고원 이서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역로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다만 리히트호펜은 여기에 ‘비단’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줌으로써, 실크 로드라는 단어는 학계를 넘어 일반 대중 사이에서조차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다.¹⁾

문제는 사용자에 따라 실크 로드라는 말의 뜻이 다르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실크 로드에서 짐을 잔뜩 실은 낙타들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대상(隊商, caravan)을 떠올린다. 19세기 근대적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다. 한편 리히트호펜 이후 실크 로드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실크 로드라는 개념은 모호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졌다. 그런 이유로 몇몇 연구자들은 날로 확장일로 걷는 실크 로드를 “단지 신화일 뿐”이고 “낭만적 사기”일 뿐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²⁾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극단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시기에 따라 변동하는 실크 로드의 실체를 밝혀 보고자 하는 발레리 한센(Valerie Hansen) 같은 역사학자도 등장하였다. 그는 실크 로드의 탈신비화를 시도하면서, 주로 6~7세기 둔황문서를 비롯한 문헌 자료를 근거로 ‘실크 로드란 길이 아니라 이동범위였으며, 거대한 사막과 산맥을 가로지르는 이정표 없는 발자취’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실크 로드를 따라 교역된 물량도 초라했고 리히트호펜이 대표적인 교역품이라고 여겼던 비단조차도 그저 실크 로드에서 교역된 여러 가지 품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했다.³⁾ 한마디로 실크 로드는 상업적으로 초라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중요했다는 뜻이다.⁴⁾

사실 실크 로드는 그 길이 언제 열렸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흔히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있었던 ‘장건(張騫)의 서역 진출’을 실크 로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중국 학계를 제외한 현대의 연구자들은 대개 그와 같

1)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사계절, 2010, 20쪽.

2) Ball, Warwick, “Following the mythical road,” *Geographical* 70, 1998, p. 23; Pope, Hugh, “The Silk Road: A romantic Description?” *The Globalist* (<https://www.theglobalist.com/the-silk-road-a-romantic-deception>, 2020년 10월 13일 참조).

3) 발레리 한센(지), 류형식(역), 『실크 로드 7개의 도시』, 소와당, 2015, 19쪽.

4) 위의 책, 403쪽.

은 주장에 회의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국가, 그것도 특정 인물에 의해서 길이 처음 열렸다는 발상 자체가 그리 현실적이지 않은 데다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고대 중국 측 사료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⁵⁾

그렇다면 실크 로드는 언제 열렸던 것일까? 길이란 원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면서 열리는 법이다. 그런 식으로 따져 거슬러 올라가면 실크 로드의 기원은 멀리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크 로드의 의의는 그 길이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경계’를 넘나들었던 교류와 교역의 장이라는데 있다.⁶⁾ 따라서 실크 로드의 연원을 찾으려면 언제부터 이 길이 교역과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했느냐는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서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또는 청금석(靑金石)에 주목하게 되었다.⁷⁾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보석은 실크 로드를 거쳐 고대문명 간 장거리 교역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다.⁸⁾

한편 고대문명 간 장거리 교역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이냐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1974년에 발간된 『근대 세계체제(The Modern World-system)』에서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자본주의가 19세기에 지배적인 세계체제로 확산하였고 이렇게 확산된 세계체제는 세계의 국가들을 단일한 분업체계 아래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등 세 가지 국가군으로 재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세 국가군은 서로 비대칭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기구의 강도와 노동 통제 방식도 국가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강력한 국가기구와 자유 임노동에 기초해 제조품 생산에 주력하는 중심부 국가는 약한 국가기구와 강제노역에 기초해 농산물 경작에 주력하는 주변부 국가들의 잉여생산물을 수탈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한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반주변부 국가들은 단일한 세계체제 안에서 중심부 국가에 수탈당하는 동시에, 주변부 국가를 수탈하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⁹⁾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발표 당시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의 말처럼 고고학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은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고고학자들이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고대문명의 생산, 유통, 장거리 교역 문제를 해석하는데 그의 세계체제론이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월러스틴의 이론을 받아들여 고대문명의 경제체제와 장거리 교역을 연구했던 고고학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월러스틴의 결론과 판이했다. 1990년대 초 안드레 군더프랑크(Andre Gunder Frank)를 비롯한 몇몇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이 5백 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5천 년 전에 이미 세계체제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세계체제의 역사가 아주 오

5) Church, Sally, “The Eurasian Silk Road: Its historical roots and the Chinese imagination,” *Cambridg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 2018, pp. 1~13.

6) 수전 윗필드, 「들어가며」, 『실크 로드』, 수전 윗필드(외 지), 이재황(역), 책과함께, 2019, 15쪽.

7) 라피스 라줄리라는 외래어를 한국어로 풀이한 말이 청금석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라피스 라줄리라는 말이 좀 더 널리 사용되는 듯하여 이 글에서는 라피스 라줄리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쓴다.

8) 조지나 허먼, 「금보다 귀한 것: 청금석」, 『실크 로드』, 수전 윗필드(외 지), 이재황(역), 책과함께, 2019, 182~187쪽.

9) 월러스틴의 ‘근대세계체제론’에 관해서는 이매뉴얼 월러스틴(지), 나종일(외 역), 「이론적 재고찰」, 『근대세계체제』 1, 까치, 2판, 2013, 529~546쪽 참조.

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일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월리스틴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논쟁은 시작되었다.¹⁰⁾ 핵심은 전근대적 경제·교역체제와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교역체제를 연속선상에서 보느냐, 아니면 단절적으로 보느냐에 있다.

본문에서는 기원전 3천 년 전에 유라시아대륙을 가로지르는 광역 교역망이 이미 구축되었다는 보는 관점에서 라피스 라줄리 장거리 교역망을 통해 고대문명 간 장거리 교역의 특성에 대해 논해보겠다. 먼저 라피스 라줄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라피스 라줄리가 고대문명 간 장거리 교역체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 속에서 라피스 라줄리 유물들의 시·공간적 분포 양상을 확인하고 거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란·이라크 지역의 고대문명 간의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장거리 교역을 발생시키고 붕괴시켰던 구조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논해보겠다.

II. 라피스 라줄리의 정의 및 산지 특성

라피스 라줄리는 황산염 및 염화물이 함유된 텍토 규산염 광물(tectosilicate mineral)로서, 등축정계 결정 구조를 가진 변성암이다. 라피스 라줄리는 석회암의 접촉 변성 작용의 산물로서, 방해석(calcite), 황철석(pyrite), 투휘석(diopside), 흙석(humite), 마그네슘, 감람석(forsterite), 백운모(muscovite) 등의 여러 가지 광물을 함유한다. 광물 중에서는 특히 천람석(lazurite: $\text{Na}_3\text{Ca}(\text{Si}_3\text{Al}_3\text{O}_{12})\text{S}$), 방해석, 황철석의 함량이 보석으로서의 품질을 결정한다. 라피스 라줄리가 청색을 띠는 이유는 천람석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라피스 라줄리는 30~40% 정도의 천람석을 함유한다. 한편 라피스 라줄리에는 황금색을 띠는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이 바로 바보금이라고 불리는 황철석이다. 흰색을 띠는 방해석은 일종의 불순물로서, 방해석 함량이 높으면 라피스 라줄리가 전체적으로 색깔이 탁하고 방해석이 뭉쳐진 지점에서는 흰색 얼룩이나 띠가 생긴다.¹¹⁾ 일반적으로 방해석(불순물)은 적을수록, 비금속원소인 황(S)과 천람석은 많을수록, 그리고 황철석은 골고루 퍼져 있을수록 라피스 라줄리의 가치가 올라간다.¹²⁾ 라피스 라줄리가 채굴되는 광산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산맥과 타지키스탄의 파미르고원 등 바다흐산(Badakhshan)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밖에 시베리아 바이칼호 인근, 버마, 이탈리아 등지에 라피스 라줄리 광산이

10) 세계체제의 연원을 5천 년 전부터 찾을 수 있다는 관점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종합적인 연구는 Frank, Andre Gunder, Gills, Barry,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Routledge, 1993, p. 320. 이에 대한 월리스틴의 반론은 위의 책 제2판 서문, 20~22쪽.

11) 문희수, 『보석, 보석광물의 세계』, 자유아카데미, 2010, 233쪽.

12) Blaise, Jacques, Cesbron, Fabien, "Données minéralogiques et pétrographiques sur le gisement de lapis-lazuli de Sar-e-Sang, Hindou-Kouch, Afghanistan," *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Minéralogie et de Cristallographie* 89: 3, 1966, p. 333; Wyart, J., Bariand, P., Filippi, J., "Lapis-Lazuli from Sar-e Sang, Badakhshan, Afghanistan," *Gems & Gemology*, 17: 4, 1981, p. 186.

있지만, 모두 최근에 개발된 광산들로서 고대 장거리 교역과 관련 없다.¹³⁾ 한편 미국, 캐나다, 칠레 등 신대륙에서도 라피스 라줄리 광산이 있으나, 이 또한 구대륙의 문명과는 상관없다.¹⁴⁾ 따라서 고대에는 힌두쿠시와 파미르 고원지대에서만 라피스 라줄리를 채굴할 수 있었다.

최근 고대문명의 라피스 라줄리의 기원지를 찾기 위해 X선 형광분석(μ -XRF), 이온 루미네센스분석(IL), 음극선 루미네센스 분석(CL), PIXE분석, PGAA분석 등 자연 과학적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바다호산 채취 원석에는 황철석이 풍부하고 투회석과 규회석(wollastonite)이 없는 반면, 바이칼호 채취 원석에서는 황철석이 거의 없는 대신 투회석과 규회석이 풍부한 편이다.¹⁵⁾ 규회석은 또한 칠레 광산 채취 원석과 바다호산 채취 원석을 구별하는데 주요 기준이기도 하다.¹⁶⁾ 한편 버마의 모콕(Mokok) 광산에서 채취된 라피스 라줄리 원석에 대한 황동위원소분석(sulfur isotope analysis)에서는 바다호산, 바이칼호, 이탈리아, 칠레, 미국 등의 산지에서 채취된 원석과 황 동위원소비율(δ^{34})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다.¹⁷⁾ 이처럼 라피스 라줄리에 대한 자연 과학적 분석은 산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직 자연 과학적 분석이 시도된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또 분석 대상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제약도 많이 따른다.¹⁸⁾ 그런 한계가 있지만 최근 라피스 라줄리 산지에서 채취된 시료들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던 고고학자들과 암석학자들은 서아시아와 이집트에서 발견된 라피스 라줄리 유물들이 모두 바다호산 일대 광산에서 운반되었다고 본다. 과거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선 부근 창가이산맥(Changai) 주변에서 이른바 ‘페르시아 산지’라고 불리던 산지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현재 연구자들은 그와 같은 견해에 대해 부정적이다.¹⁹⁾

13) 石黒孝次郎, 「ラピス・ラズリ考」, 『オリエント』 20: 1, 1977, pp. 165~167.

14) Aleksandrov S. M. & Senin V. G. "Genesis and composition of lazurite in magnesian skarns," *Geochemistry International* 44, 2006, p. 976.

15) Nikbakht, T. Kakuue, O., Lamehi-Rachti, M., "Ionoluminescence spectroscopy and microscopy of lapis lazuli," *Journal of Luminescence* 181, 2017, pp. 246~251; Law, Randall, "Evaluating Potential Lapis Lazuli Sources for Ancient South Asia using Sulfur Isotope Analysis," In: *My Life is Like the Summer Rose: Maurizio Tosi e l'archeologia come modo di vita*, C. C. Lamberg-Karlovsky, B. Genito and B. Cerasetti, (eds.), Bar International Series 2690, 2014, pp. 419~429; Nöller, Renate, Feldmann, Ines, Kasztovszky, Zsolt, Szőkefalvi-Nagy, Zoltán and Kovács, Imre, "Characteristic Features of Lapis Lazuli from Different Provenances: Revised by μ XRF, ESEM, PGAA and PIXE," *Journal of Geological Resource and Engineering* 7, 2019, pp. 57~69.

16) Nöller, Renate, et al., *Ibid.* p. 58.

17) Keisch, B. and Callahan, R. C., "Sulfur Isotope Ratios in Ultramarine Blue: Application to Art Forgery Detection," *Applied Spectroscopy* 30: 5, 1976, pp. 515~520; Law, Randall, *op. cit.* p. 425.

18) 자연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유물에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문화재를 파괴 분석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분석은 대개 매우 작은 파편처럼 문화재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스러기로 제한되고 이나마도 전체 라피스 라줄리 유물의 양에 비하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대안으로 비파괴분석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비파괴분석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19) Law, Randall, *op. cit.* pp. 421~423.

Ⅲ. 라피스 라줄리 유물의 시공간적 분포와 교역로

1. 유물의 분포 양상과 교환의 형태

인더스문명과 메포타미아문명의 라피스 라줄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1960년대 말 영국의 조지나 허먼(Georgina Herrmann)에 의해 선구적으로 이뤄졌다.²⁰⁾ 그 후 70년대와 80년대 연구들에서 구대륙의 고대문명 간 장거리 교역시스템을 설명하면서 라피스 라줄리 교역이 간혹 언급되었지만, 당시 논의는 허먼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라피스 라줄리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온 프랑스의 미셸 카자노바(Michèle Casanova)가 2013년에 그동안 자신의 연구 성과들을 한데 모은 종합적인 연구서를 출간했다.²¹⁾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로 허먼과 카자노바의 연구를 바탕으로 라피스 라줄리의 시공간적 분포 양상과 이동 경로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림 1〉 라피스 라줄리가 출토된 주요 고대 유적(Casanova, 2013)

20) Herrmann, Georgina, "Lapis Lazuli-The Early Phases of its Trade," *Iraq* 30: 1, 1968, pp. 21~57.

21) Casanova, Michèle, *Le lapis-lazuli, la pierre précieuse de l'Orient ancien: gisements, production, circulation, des origines au début du second millénaire avant J.-C.*, CTHS, 2013, p. 281.

〈그림 1〉에서 보듯 라피스 라줄리 유물은 중앙아시아 힌두쿠시산맥, 파미르고원, 인더스강 유역, 이란고원, 페르시아만 연안,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북아프리카, 유럽 동남부 등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토되었다.²²⁾ 카자노바의 조사에 따르면 라피스 라줄리가 출토된 유적은 적어도 70여 곳이 넘는다.²³⁾ 한편 라피스 라줄리 유물가 출토된 유적들을 문명권에 따라 살펴보면 옥서스문명(또는 박트리아-마르기아나문명), 인더스문명, 엘람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이집트문명, 에게문명 등 고대의 다양한 문명권에서 출토되었다(그림 2).

1. 메소포타미아, 우르(기원전 2550년~기원전 2400년)



2. 이집트, 히에라콘폴리스(기원전 2900년)



〈그림 2〉 메소포타미아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라피스 라줄리(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3)

그런데 이처럼 여러 문명권에서 라피스 라줄리 유물이 출토되지만 가장 많은 라피스 라줄리 유물이 출토된 문명권은 〈표 1〉에서 보듯이, 메소포타미아문명권이다. 메소포타미아문명권은 차순위인 엘람문명권에 비해 교해 봐도 무려 10배가 넘는 정도로 많은 라피스 라줄리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명권을 압도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있는 마을 간 물자 교환은 대개 산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양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직선에 가까워서 그와 같은 교환을 직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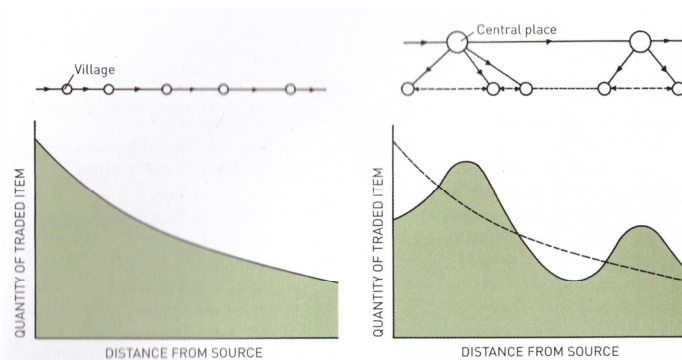
22) 高宮いづみ, 「前4千年紀ナイル川下流域におけるラピスラズリ交易について」, 『西アジア考古学』 2, 2001, pp. 24~27; 川又正智, 『漢代以前のシルクロード—運ばれた馬とラピスラズリ』, 雄山閣, 2006, pp. 43~51.

23) 〈그림 1〉의 분포도에는 63개소의 유적만 표시되어 있다. 분포도를 작성한 카자노바는 유적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지도상에 표기하기 어려운 유적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출토된 유물이 라피스 라줄리인지가 불확실한 경우 분포도에서 제외했다. 사실 라피스 라줄리가 출토된 고대 유적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제2차 대전 이전에 수집된 유물 중에는 남동석(azulite)과 혼동하여 라피스 라줄리로 보고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카자노바의 분포도에서 제외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 무디각(Mudigak), 몬주클리-데페(Mondjukli-Depe), 카라-데페(Kara-Depe), 카푸즈-데페(Khapuz-Depe), 파르카이(Parkhai); 이란고원: 텔리이블리스(Tell-i Iblis); 메소포타미아: 에리두(Eridu), 텔아르파치야(Tell Arpachiyah), 제벨아루다(Jebel Aruda).

〈표 1〉 지역에 따른 라피스 라줄리 유물의 빈도수(Casanova, 2013, p. 23)

	메소포타미아	이란	중앙아시아-파키스탄	동부 아라비아	총계
구슬	30,002점	1,382점	1,004점	8점	32,396점
상감 부착품	4,840점	183점	0점	1점	5,024점
소형 조각품	197점	10점	4점		211점
기타	72점	5점	2점	2점	81점
제작과정 부산물	76점	1,582점	728점		2,386점
총계	35,187점	3,206점	1,738점	11점	40,142점

쇠형 교환(down-the-line exchange)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중심지와 중심지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고 각각의 중심지가 여러 마을을 거느린 경우, 권력에 의한 재분배 또는 시장에 의한 교환이 이뤄지고 이와 같은 교환 형태를 다형감쇠곡선형 교환(multi-modal fall-off curve exchange)이라고 한다(그림 3).



〈그림 3〉 평등사회와 불평등사회의 교환체계의 이론적 분포 양상
(Renfrew and Bahn 2016)

비경제적 요인이 라피스 라줄리 교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토된 토판들을 통해 볼 때 라피스 라줄리 유통은 때론 시장을 통해서 때론 왕실과 사원에 대한 공납 형태로 이뤄졌다.²⁵⁾ 1944년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 출간 이후, 고대문명의 경제의 성격에 관하여 ‘형식론자와 실질론자 사이의 논쟁(formalist-substantivist debate)’이 80년대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시장경제의 존재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는 고

그러나 메소포타미아문명은 산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피스 라줄리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직선감쇠형 교환 유형에 속하기도, 그렇다고 다형감쇠곡선형 교환에 속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라피스 라줄리의 교역은 순전히 경제원리에 따른 교역 패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아마도 해당 지역의 취향 또는 기호 같은

24) Renfrew, Colin, Bahn, Paul,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Thames & Hudson, 7th edition, 2016, p. 378.

25) Casanova, Michèle, *op. cit.* pp. 225~231.

고학자는 없다.²⁶⁾ 다만 재분배(왕실경제, 사원경제)와 시장경제의 영역들이 서로 겹치고 그 경계가 모호하기에 그에 관한 세부적 논의만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라피스 라줄리 교역은 개별 도시국가들의 사정에 따라, 국가 또는 사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재분배되기도 하고 시장에서 시세에 따라 교환되기도 하였다.

2. 시대 변화에 따른 라피스 라줄리 소비량 변동

고대 사회에서 장신구는 소속집단에 대한 결속의 상징이자, 다른 집단과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그 속성상 장신구 원료는 늘 새로웠어야 했으며 귀해야만 했다.²⁷⁾ 다소 도식적으로 말해서 구석기시대 장신구의 주원료가 육상동물의 뼈와 치아(상아)였다면 신석기시대 장신구들의 주원료는 조개였다.²⁸⁾ 그러던 것이 금속이 이용되는 동석시대(銅石時代, Chalcolithic Age), 즉 후기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금속과 보석 등 지하광물로 제작된 장신구가 증가한다. 그런 맥락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라피스 라줄리의 사용은 이전 시대, 즉 전기 신석기시대와 단절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기 신석기시대에 속한다고 보고된 라피스 라줄리는 우선 유물 자체가 극소수이고 그나마도 남동석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아니면 교란층에서 나온 유물들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전기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라피스 라줄리 유물은 인더스 문명권 안에서만 발견되었다. 라피스 라줄리가 최초로 확인된 유적은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Balochistan) 지역에 있는 메르가르(Mehrgarh) 유적이다. 인더스문명의 발상지인 이 신석기시대 유적은 기원전 7천 년부터 기원전 2천 5백 년까지 약 4천 5백 년 동안 점유되었다. 라피스 라줄리 유물은 유적의 IA기, 즉 기원전 7000년~기원전 6000년 사이에 형성된 무덤에서 출토되었다.²⁹⁾ 메르가르 유적에서 이처럼 라피스 라줄리가 일찍 출현했던 이유는 유적이 산지와 가까워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기적으로 라피스 라줄리가 최초로 발견된 유적으로는 이라크 북부 모술 인근의 야림테페(Yarim tepe) I 유적과 남부 바그다드 근처 사마라(Samara) 유적이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카자노바의 재조사에 따르면 야림테페의 아래층에서 출토된 라피스 라줄리로 보고된 구슬들은 남동석으로 판명되었고, 1910년대에 조사된 사마라 유적은 후대의 층과 교란된 층에서 출토되었다.³⁰⁾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신석기시대 층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라피스 라줄리 5점은 모두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유물이 아니거나, 라피스 라줄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라피스 라줄리는 신석기시대는 물

26) Warburton, David, "Marchés dans l'Égypte Ancienne, In: *Histoire des représentations du marché*, Guy Bensimon," (éd.), M. Houdard, 2005, p. 641.

27) 장 길렌·장 자미트(지), 박성진(역), 『전쟁 고고학: 선사시대 폭력의 민낯』,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313~314쪽.

28) Dubin, Lois Sherr, *The Worldwide history of Beads*, Thames & Hudson, Second edition, 2009, p. 25; Casanova, Michèle, *op. cit.* p. 22.

29) Jarrige, Jean-François, "A propos d'un foret à tige hélicoïdale en cuivre de Mundigak," In: *De l'Indus aux Balkans: Recueil à la mémoire de Jean Deshayes*, Jean-Louis Huot, Marguerite Yon, Yves Calvet (ed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5, pp. 281~292.

30) Casanova, Michèle, *op. cit.* p. 24.

론, 그 이후 시대인 우바이드기(Ubaid period: 기원전 5100년~기원전 4000년),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서 도시들이 형성되는 우루크 팽창기(Uruk expansion), 또는 우루크기(Uruk period: 기원전 4000년~3100년)에서조차 매우 드물다(표 2).³¹⁾

〈표 2〉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지역의 라피스 라줄리 유물(Casanova, 2013, p. 18)

	시대(BC)	구슬	상감 부속품	소형 조각품	기타	제작과정 부산물	총계
동석 시대	우바이드시대(5100~4000)	2점					2점
	우루크시대(4000~3100)	9점	7점	1점		1점	18점
	동석시대 총계	11점	7점	1점		1점	20점
청동기시대	청동기 전기 I - II (3100~2600)	840점	29점	10점	2점	1점	882점
	청동기 전기 III-IV (2600~2000)	28,701점	4,796점	185점	69점	74점	33,825점
	청동기 중기 I (2000~1800)	5점					5점
	청동기시대 중기 II (1800~1600)	3점	6점				9점
	분기 미상	442점	2점	1점	1점		446점
	청동기시대 총계	29,991점	4,833점	196점	72점	75점	35,167점
	총계	30,002점	4,840점	197점	76점	76점	35,187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라피스 라줄리 유물의 양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시대는 청동기시대로, 특히 청동기 시대 전기 후반, 즉 청동기시대 III-IV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표 2). 그런데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는 도시국가들이 성장과 몰락을 반복하던 불안정한 시대였다. 이 기간에 명멸했던 왕조들을 연대 순으로 나열하면, 왕조성립 이전 시기인 엠벳 나스르 시대(Jemdet Nasr period: 기원전 3100년~기원전 2900년)부터 초기왕조 시대(Early Dynastic Period: 기원전 2900년~기원전 2350년), 아카드 제국 시대(Akkadian Empire: 기원전 2334년~기원전 2154년), 구티왕조 시대(Gutian dynasty: 기원전 2199년~기원전 2119년), 우르 제3왕조 시대(Third Dynasty of Ur: 기원전 2112년~기원전 2004년) 등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라피스 라줄리와 관련하여 눈여겨봐야 할 점은 초기왕조 시대, 그중에서도 특히 제III기(기원전 2600년~기원전 2450년)의 우르 왕조 능역(陵域, The royal cemetery of Ur)에서 막대한 양의 라피스 라줄리가 출토되었다는 점이다(표 3).³²⁾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라피스 라줄리는 단기간 집약적인 방식으로 소비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31)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석시대와 청동기시대의 편년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데, 여기서는 카자노바의 편년을 따랐다. Casanova, Michèle, *ibid.* p. 19.

32) Woolley, Leonard, *Ur Excavations II: The royal cemetery*, Publications of the Joint Expedition of the British Museum and the Museu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o Mesopotamia, 1934, p. 604; Woolley, Leonard, *Ur Excavations IV: The Early Periods*, Publications of the Joint Expedition of the British Museum and the Museu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o Mesopotamia, 1954, p. 225.

〈표 3〉 우르 도시국가 무덤에서 출토된 라피스 라줄리의 시기별 빈도수 변화(Casanova, 2013, p. 52)

시기	엠티 나스르시대	초기 왕조시대 I 기	초기 왕조시대 II 기	초기 왕조시대 III 기	초기 왕조시대 (분기미상)	아카드제국 시대	우르 제3왕조 시대	총계
무덤 개수	6기	17기	5기	264기	7기	197기	25기	521기
유물 개수	8점	26점	10점	30874점	10점	678점	313점	31917점

초기왕조 시대 III기 능력은 라피스 라줄리가 상당히 많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양식의 라피스 라줄리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물론 다른 유적들에서처럼 이곳에서 출토된 라피스 라줄리도 대부분 아주 작은 장신구였다. 그렇지만 같은 장신구라 하더라도 능력에서 출토된 장신구들은 그 제작 솜씨가 빼어났다. 이는 수준 높은 장인집단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데, 학계에서는 왕실이 장인집단을 직접 통제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목걸이, 팔찌 이외에도 푸아비(Puabi) 왕비 능에서 금, 홍옥수(carnelian), 라피스 라줄리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寶冠, headdress)이 출토되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그밖에 〈그림 2-1〉의 우르의 깃발(Standard of Ur)을 비롯해 황소 머리 장식의 리라(Bull-headed lyre), 나무에 앞발을 걸치고 있는 숫양(Ram in a Thicket), 홀(笏, Scepter), 단검(손잡이), 놀이기구(보드게임의 판과 말), 잔, 화장품 용기 등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출토되었다(그림 4). 그러나 이처럼 초기왕조 시대 제III기에 절정에 이르렀던 라피스 라줄리 소비량은 〈표 2〉와

황소 머리 장식의 리라 나무에 발을 걸치고 있는 숫양



〈그림 4〉 우르 능력에서 출토된 라피스 라줄리 유물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3)

〈표 3〉에서 보듯이, 아카드 제국 시대와 신수메르제국(Neo-Sumerian Empire)이라고도 불리는 우르 제3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감소하고 기원전 2000년경 이후, 즉 구바빌로니아 시대(Old Babylonian period: 기원전 2025년~기원전 1595년)가 열리면서부터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만다. 여기서 라피스 라줄리의 수요가 급락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라피스 라줄리의 소비량이 급락했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문명 간 장거리 교역망이 파괴되었다는 점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라피스 라줄리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³³⁾ 기원전 2100년경부터

33) Cunliffe, Barry, *By Steppe, Desert, and Ocean: The Birth of Eur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 116~117.

이란 저지대 수사(Susa)지역에서 건국한 엘람은 이웃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빈번하게 침략했다. 그러나 이미 약해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이를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하였다. 결국, 기원전 2004년 엘람은 자그로스산맥 고원의 시마슈키 왕조(Simashki dynasty)와 동맹을 맺고 제3왕조의 왕, 입비신(Ibbi-Sin)을 엘람으로 압송하고 우르를 약탈했다. 이렇게 우르 제3왕조가 멸망하면서 수메르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과거 중앙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간 교역의 중개자(middleman)로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이란 지역의 정치체가 기존의 종속적 처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엘람의 급성장은 육로를 통한 라피스 라줄리 교역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더 동쪽에서 일어났다. 기원전 1900년경에 인더스문명이 붕괴된 것이다.³⁴⁾ 초기왕조 제Ⅲ기의 수메르인들은 당시 라피라줄리를 비롯한 많은 물자를 주로 해상교역로를 이용해서 인더스문명과 교역했는데, 이젠 교역의 파트너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수메르문명)와 공급자(인더스문명)의 몰락, 중개자(엘람)의 발흥으로 라피스 라줄리 장거리 교역체계는 무너졌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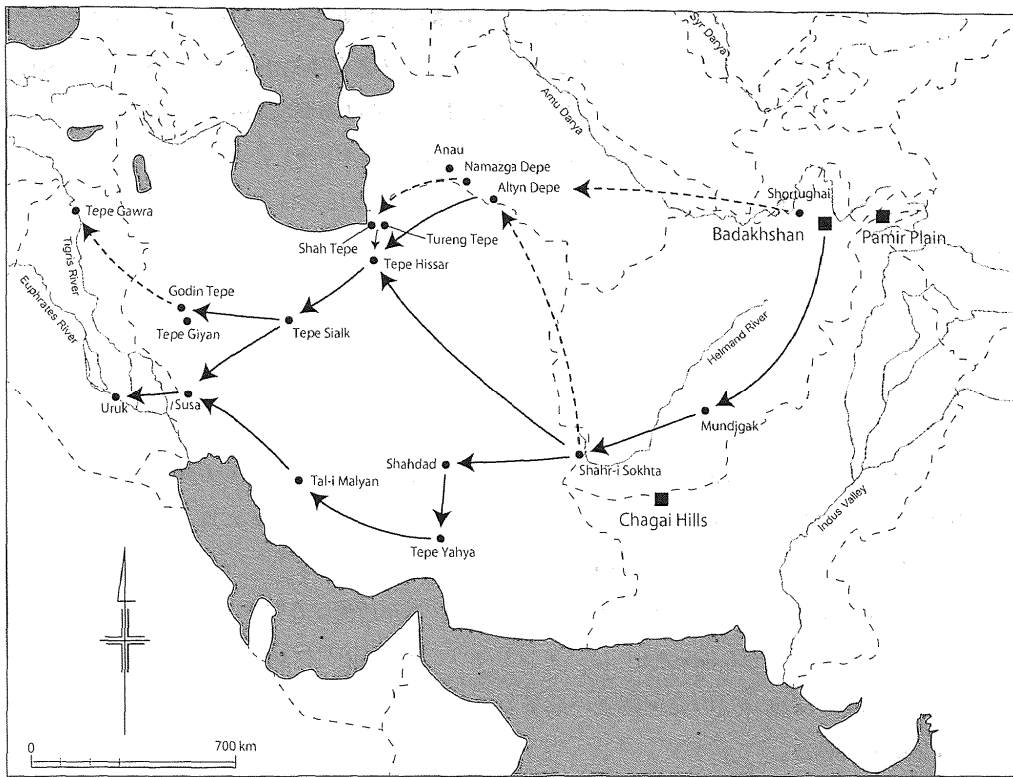
3. 3대 교역로와 교역로의 전환

〈그림 1〉의 라피스 라줄리의 분포 양상에서 알수 있듯이, 중앙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라피스 라줄리가 도달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이 중 두 가지는 육로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해로이다.³⁵⁾ 첫 번째 북부 교역로는 원산지인 바다호산에서 아무다리아강의 지류인 콕차강(Kokcha River)을 따라 저지대로 내려와서 카라쿰, 키질쿰사막 남단의 바트리아-마르기아나지역에 산재된 오아시스들을 지나, 자그로스산맥을 넘어,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으로 진입하는 길이다. 이 길은 후대의 실크 로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호라산로(Khorassan road)와 같다. 이 교역로 상 라피스 라줄리 유물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소르투가이(Shortugai), 고누르(Gonur), 알틴테페(Altyn tepe), 테페히사르(Tepe Hissar), 테페시알크(Tepe Sialk), 테페기안(Tepe Giyan), 테페가우라(Tepe Gawra) 등이 있다(그림 5).

두 번째 육로는 힌두쿠시산맥에서 남서 방향으로 흐르는 헬만드강(Helmand)을 따라 저지대로 내려와서, 이란 남부를 거쳐 메소포타미아 저지대로 들어가는 남부 교역로이다. 남부 교역로 상에서 라피스 라줄리 유물이 출토 유적으로는 문디각(Mundigak), 샤흐레쇼흐타(Shahr-i-Sokhta), 샤다드(Shahdad), 지로프트(Jiroft), 테페야히야(Tepe Yahya), 탈리말얀(Tall-i Malyan), 수사(Susa) 등이 있다(그림 5). 해상교역로는 남부 교역로 상에 있는 테페야히야를 출발하여, 호르무즈해협으로 와서 배를 타고 고대 텍스트에 등장하는 마간(Magan), 딜문(Dilmun)을 거쳐 페르시아만을 지나, 메소포타미아 남부 저지대에 도달하는 교역로가 있다. 그 밖에도 문헌상 멜루하(Meluhha)로 여겨지는 인더스 문명권의 로탈(Lothal)이나 캄베이(Cambay) 등 항구도시를 출발, 아라비아해를 거쳐 호르무즈해협을 지나, 메소포타미아 남부 저지대까지 연안 항해를 통해 직접 교역하는 해로도 있었다.³⁶⁾

34) Possehl, Gregory, *The Indus civilization: A contemporary Perspective*, Altamira, 2002, p. 237.

35) Herrmann, Georgina, *op. cit.* p. 53.



〈그림 5〉 라피스 라줄리 남북 교역로(工藤悠大, 2015)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 세 가지 교역로가 동시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주요 교역로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교역로가 전환되는 데에는 국제정세의 변화나 운송비용, 운송량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육로는 해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더 든다. 그리고 해로를 이용하게 되면 육로로 운송할 때보다 더 많은 물자를 운송할 수 있다.³⁷⁾ 게다가 육로를 통한 장거리 교역은 이웃 국가 간에 갈등이나 약탈의 위험이 크다는 점도 육로교역의 약한 고리다. 따라서 여러모로 육로보다는 해로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허먼은 라피스 라줄리 장거리 교역이 초기에는 북부 교역로 상의 주요 거점 유적이었던 테페 가우라와 같은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식민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지다가, 후기에는 샤흐레소흐타와 테페야히아와 같은 원시 엘람문명의 도시들이 교역의 주도권을 잡는 남부 교역로로 바뀌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 적 있다.

36) 인더스문명과 서아시아 문명의 해상교역에 관해서는 Possehl, Gregory, *op. cit.* pp. 218~221 참조.

37) 후대인 기원전 1800년경 텍스트이긴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와 킬문(Tilmun, Dilmun: 현재 바레인) 사이의 단 한 번의 교역에서 구리만 무려 20t이나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해상교역의 규모가 막대했음을 잘 보여준다. Cunliffe, Barry, *op. cit.* p. 113.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유세프 마지차드(Yousef Majidzadeh)는 라피스 라줄리 교역에서 북부 교역로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주로 남부 교역로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다.³⁸⁾ 이처럼 학계에서는 북부 육로와 남부 육로의 비중을 놓고 다소 논쟁이 있지만, 라피스 라줄리를 비롯한 동서 교역로가 최종적으로 해상교역로로 귀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³⁹⁾

IV. 고대 장거리 교역의 구조

이란의 테페히사르(Tepe Hissar) 유적과 샤흐레쇼흐타(Shahr-i-Sokhta) 유적은 라피스 라줄리를 대량생산했던 도시 유적이다.⁴⁰⁾ 그런데 이 도시에서 대량생산된 라피스 라줄리 물품들은 샤흐레쇼흐타 유적의 무덤에 부장된 라피스 라줄리 유물과의 비교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도시 내 소요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두 도시에서 생산된 라피스 라줄리 물품은 어딘가로 수출되었을 터인데, 대다수 연구자는 메소포타미아, 그중에서도 특히 남부 저지대 도시국가들로 수출되었을 것으로 본다. 즉 테페히사르와 샤흐레쇼흐타에서 생산된 물품 대부분은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상품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세공장인들에 관한 민족지 연구와 라피스 라줄리 구슬 제작의 정교함에서 보듯이, 라피스 라줄리 세공에는 상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⁴¹⁾ 따라서 이와 같은 상품들이 전문적인 장인집단에 의해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전문적인 장인집단이 형성되고 운영되려면 식량자원을 비롯한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이 없다면 도시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분업체계가 자체가 무너져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도시의 엘리트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식량자원을 비롯한 생필품을 도시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자체 내 생산만으로는 생필품을 충당할 수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해야만 도시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환경적 압력이 테페히사르와 샤흐레쇼흐타에서 라피스 라줄리를 비롯한 사치재 생산을 촉진했다고 본다. 사치재 수출을 통해 부를 축적해 그 대금을 가지고 자신들

38) Majidzadeh Y., "Lapis lazuli and the Great Khorasan Road," *Paléorient* 8: 1, 1982, pp. 59~69.

39) 해상교역로의 주요 길목이었던 오만 동부, 라스 알-진즈(Ra's al-Jinz)의 RJ-2유적에서 기원전 2500년에서 기원전 2200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작된 배의 방수용 역청(bitumen) 파편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Cleuziou, Serge and Tosi, Maurizio, "Black boats of Magan: some thoughts on Bronze Age water transport in Oman and beyond from the impressed bitumen slabs from Ra's al-Junayz," *South Asian Archaeology* 271, 1994, pp. 745~762.

40) Bulgarelli, Grazia, "Tepe Hissar, Preliminary Report on a Surface Survey," *East and West* 24: 1/2, 1974, pp. 15~27; Tosi, Maurizio, Bulgarelli, G. M., "The stratigraphic sequence of square DF 88/89 on south Hill, Tappeh Hesār," In: *Tappeh Hesār: Report of the Restudy Project*, 1976, R. H. Dyson and S. M. Howard (eds.), Monografie di Mesopotamia, Firenze, 1989, pp. 48~50; Vidale, Massimo and Lazzari, Alessandra, *Lapis Lazuli bead making at Shahr-i-Sokhta-Interpreting: Craft Interpreting Production in a Urban Community of the 3rd Millennium bc*, ISMEO, Edizioni Antilia, 2017, p. 379.

41) Kenoyer, Jonathan, "Lapis Lazuli: Beadmaking in Afghanistan and Pakistan," *Ornament* 15: 3, 1992, pp. 71~74; Casanova, Michèle, *op. cit.* pp. 203~206.

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기 위해 좀 더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1960년대부터 1979년 이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의 고고학자들은 신고고학의 관점에서 이란과 이라크 일대에서 고고학적 조사를 수행했다.⁴²⁾ 그들은 기존의 왕릉 또는 신전 중심 발굴조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지역에 주목했고 이전에는 엄두 내지도 못했던 광범위한 지표 조사를 통해서 취락 간의 서열화를 밝혀냈다. 또한 그들은 고고학적 사실들을 단순히 기술(description)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과거 사회의 구조를 설명(explanation)하고자 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론으로 무장한 미국의 고고학자들은 60·70년대에 세계고고학계를 주도했다. 그런데 당시 이란·이라크의 생태 환경에 관한 미국 측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이란 지역이 목재와 지하자원은 풍부하지만, 안정적인 생필품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었던 반면, 이라크 남부지역은 생필품은 풍부하지만, 목재와 지하자원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지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란의 엘람 사회는 장거리 교역을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생필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고 이라크의 수메르 사회는 도시 생활과 국가적 번영을 도모하려면 목재와 지하자원을 장거리 교역을 통해서 확보해야 했다는 뜻이다. 일찍이 고든 차일드(Gordon Childe)는 도시와 국가의 출현 과정에서 장인집단과 장거리 교역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 있는데, 이 두 문명의 관계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⁴³⁾ 이웃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엘람 문명권은 서로에게 부족한 자원을 채워주고 또 남은 자원은 털어내는 이른바 ‘상보적 관계(complementarity)’가 형성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아주 일찍부터 무르익었고, 실제로 복합사회(complex society) 출현 이후 두 문명권은 장거리 교역망을 통해 자신들의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두 문명권의 생태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필립 콜(Philip Kohl)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다(표 4).⁴⁴⁾

〈표 4〉에서 ‘특화된 고지대’란 이란 고원지대의 도시와 촌락을, ‘도시화된 저지대’란 메소포타미아 유역 저지대와 이란 서남부의 수사(Susa) 일대, 즉 수시아나(Susiana) 지역을 말한다. 필립 콜은 고지대와 저지대의 생태 환경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징을 자급자족할 수 있거나 독립적인 경우(+)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경우(0) 등 세 등급으로 서열화한 다음, 두 지역을 비교·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산악지대는 정주성이 낮고 인구분포는 분산적이며 권력의 집중화 정도가 미약하다. 반면에 저지대는 정주성이 높고 인구는 밀집되어 있으며 권력이 집권화되었으며 체계적이다. 따라서 저지대에서는 도시 발달과 국가 형성이 고지대보다 일찍 형성되었고 고지대에서는 저지대 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한 물질-이데올

42) Adams, Robert (with H. J. Nissen), *The Uruk Countryside: The Natural Setting of Urban Societ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 241; Lamberg-Karlovsky, C. C., “Trade Mechanisms in Indus-Mesopotamian Interrel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92: 2, 1972, pp. 222~229; Wright, Henry and Johnson, Gregory, “Population, exchange, and early state formation in southwestern Iran,” *American Anthropologist*, 77: 2, 1975, pp. 267~289; Kohl, Philip, “The Balance of Trade in Southwestern Asia in the Mid-Third Millennium B. C.,” *Current Anthropology* 19: 3, 1978, pp. 463~492; Potts, T. F., “Patterns of trade in third-millennium BC Mesopotamia and Iran,” *World Archaeology* 24: 3, 1993, pp. 379~402.

43) Childe, Gordon, “The Urban Revolution,” *The Town Planning Review* 21: 1, 1950, pp. 15~16.

44) Kohl, Philip, *op. cit.* p. 471.

〈표 4〉 기원전 2500년경 서아시아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구조 (Kohl, 1978)

	특화된 고지대	도시화된 저지대
생태 환경	산악지대, 원료 풍부 (+)	하천 평야지대, 원료 빈곤 (-)
거주 패턴	중심지로부터 고립되어 자치적, 분산된 형태의 인구, 뚜렷한 영역 간 구별 (-)	인구밀도가 높은 중심지들이 하천을 따라 발달됨 (+)
경제 토대	농업 및 목축 경제(0)	주로 관개 농업, 목축과 어업이 보충적인 역할(0)
생업 토대의 특징	매년 가축과 곡물 기근을 겪음 (-)	항구적인 잉여 식량 (+)
기본 생산 단위	“가족 공동체”와 농한기 일시적으로 결집되는 친족 단위 (-)	“농촌공동체”/사원 -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 (+)
지배적인 사회정치 조직	목축 기반 마을 연합체 (다지역 간 상호작용에 적응) (+)	영역 왕국 (-)
통치 단위	군장 개인(-)	과두제적 사제 계급(+)
사회 발전 단계	군장 사회? (-)	국가 (+)
산업 생산 조직	리더가 주기적으로 통제하는 장인들 (-)	대가족 기반의 개인과 사원 - 국가에서 고용한 반자유 노동자 또는 고객
교역 주체	일시적인 개별 교역자/이동 생활을 하는 친족 기반 집단 (-)	제도화된 상인 계급 (+)
교환을 위한 생산품의 성격	값진 원료와 정교한 사치품 (-)	잉여 식량(곡물과 생선)과 생활용품(직물) (+)

로기적 자극을 받아 도시와 국가가 탄생하였다.

인류학계는 고지대의 정치체 같은 국가를 이차국가(secondary state)라고 한다. 이차국가는 초기에 일차국가(primary state)에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특징이 있다.⁴⁵⁾ 고대 사회가 근대 사회와 크게 다른 점은 이차국가가 일차국가를 정복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식량자원을 비롯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일차국가가 고부가가치제품, 즉 사치재를 생산하는 이차국가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차국가와 이차국가 간의 서열이 발생하며 고대 세계체제 속에서 일차국가는 중심지로, 이차국가는 반주변부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렇지만 중심지와 반주변부의 관계는 유동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될 경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때론 이차국가가 일차국가를 정복하여 흡수·통합한다거나, 아니면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일차국가로부터 해계모니를 탈취할 수도 있다.

고지대와 저지대 모두 농업 - 목축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저지대는 높은 인구밀도, 문자를 통한 행정체계, 노동집약적인 관개 농업 등을 통해 막대한 양의 잉여 식량 생산과 거의 산업화

45) Parkinson, William and Galaty, Michael, “Secondary States in Perspective: An Integrated Approach to State Formation in the Prehistoric Aegean,” *American Anthropologist* 109: 1, 2007, p. 114.

수준에 가까운 모직물생산이 가능했다.⁴⁶⁾ 반면에 고원지대는 식량과 모직물 같은 생필품을 자체 생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생필품 공급조달이 어려웠던 고지대는 자신들이 저지대에 비해 우위에 있는 목재, 지하자원을 원료 상태로 또는 반제품, 완제품 상태로 수출함으로써, 생필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를 메꿔나갔다. 또한 테페히사르와 샤흐 레쇼흐타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거리 교역체계에서 고지대 도시들은 저지대에 수출할 목적에서 귀금속 원료를 공급지에서 수입해 정교한 사치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장인집단을 특화했고 이 장인집단은 군장의 통제 아래 운영되었다.

한편 국가 간 수출입을 원활히 하려면 물품을 크기 또는 무게를 재기 위한 측정체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개별 문화권마다 다른 측정 단위들을 평가할 수 있는 환산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셰켈(Shekel)이라는 무게 단위를 사용했다.⁴⁷⁾ 현존하는 중동지역 저울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60의 셰켈(0.14g)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⁴⁸⁾ 아마도 이런 작은 추는 보석이나 귀금속의 무게를 달기 위한 추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하려면 지불수단도 있어야 한다. 중동과 지중해 동부에서 현재와 같은 주조화폐가 등장한 시기는 수메르문명이 사라지고도 한참 뒤인 기원전 7세기 또는 6세기 무렵이다.⁴⁹⁾ 따라서 수메르문명에서는 지금과 같은 화폐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보리, 양모, 구리, 은, 금 등이 화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일상재 거래에는 보리가, 사치품 거래에는 금속이 많이 쓰였다.⁵⁰⁾ 거래는 물자들의 무게를 달아 이뤄졌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무게가 곧 가격이었기 때문이다.⁵¹⁾ 특히 은은 장거리 교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화폐로서, 기원전 18세기 도시국가 마리(Mari)의 토판에는 라피스 라줄리 1셰켈은 은 2셰켈, 금 0.5셰켈과 같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라피스 라줄리의 실제 시세는 원석의 품질에 따라, 원산지과 거리에 따라 결정되었다.⁵²⁾ 그렇지만 라피스 라줄리가 터키석, 홍옥수, 설화석고, 동석과 같은 다른 보석류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필자는 고지대와 저지대가 구조적으로 상보적 관계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이 두 지역이 상생적 공생 관계이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일

46) Algaze, Guillermo, "Initial Social Complexity in Southwestern Asia: The Mesopotamian Advantage," *Current Anthropology* 42: 2, 2001, pp. 199~233; Breniquet, Catherine, "Early wool of Mesopotamia, C. 7000~3000 BC, Between prestige and economy," In: *The Competition of Fibres*, Wolfram Schier and Susan Pollock (eds.), Oxbow Books, 2020, p. 26.

47) 1셰켈을 지금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8.4g이다. Mederos, Alfredo and Lamberg-Karlovsky, C. C., "Converting currencies in the Old World," *Nature* 411, 2001, p. 437; Hafford, William, "Weighing in Mesopotamia: The Balance Pan Weights from Ur," *Akkadica* 133: 1, 2012, 2005, pp. 21~65.

48) Hafford, William, "Hanging in the Balance," *Expedition* 47: 2, 2005, p. 37.

49) Neiburger, E.J. and Spohn, Don, "Prehistoric money," *Central States Archaeological Journal* 54: 4, 2007, p. 189.

50) Powell, Marvin, "Money in Mesopotamia,"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39: 3, 1996, p. 224.

51) Warburton, David, "Integration by Price in the Bronze Age," In: *South Asian Archaeology 2007: Proceedings of the 19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outh Asian Archaeology, Ravenna, Italy (2-6 July 2007)*, Dennys Frenez and Maurizio Tosi (eds.), BAR International Series 2454, 2013, p. 295.

52) Casanova, Michèle, *op. cit.* p. 230.

반적으로 문명 초기, 즉 원사-엘람 시대(기원전 3200년~기원전 2700년)와 고 엘람 시대 전기(기원전 2700년~기원전 2400년)까지는 저지대의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들이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엘람의 첫 번째 왕조인 아완 왕조(Awan dynasty: 기원전 2400~기원전 2100년)가 들어서고 고지대 국가와 저지대 국가 간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졌다.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들은 동서 교역로 상에 식민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교역망을 장악하고자 했고, 원산지인 인더스 문명권과 장거리 직거래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자원을 공급받으려 했다. 반대로 장거리 교역의 중개자로서 발흥했던 엘람은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간의 직거래를 막고 중개자로서 이익을 챙기려 했기에, 두 지역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⁵³⁾ 앞서 라피스 라줄리의 교역로가 시기에 따라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는데, 필자는 이와 같은 소비지 국가와 중개지 국가 간의 입장의 차이와 국제 관계에서의 역학 관계가 교역로의 변동을 추동했다고 본다. 즉 장거리 교역의 초기에는 소비지의 메소포타미아 국가들이 식민 도시를 경영하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였지만, 후기에는 후발주자인 이란의 중개지 국가들의 급격한 성장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육로를 통한 교역을 줄여나가는 대신, 원료공급지인 중앙아시아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해로를 통한 교역을 늘려나갔고 본다.

V. 결 론

지금까지 라피스 라줄리를 중심으로 고대 교역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봤다. 필자는 여기서 라피스 라줄리가 4000km가 넘는 교역망이 고대 사회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의 유일한 고고학적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고대 사회 장거리 교역 존재를 지시하는 다른 고고학적 유물이 있다. 주석, 구리 같은 금속류나 홍옥수, 터키석 같은 보석류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속 또는 광물 자원은 산지가 여럿이어서, 유물의 산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역망을 복원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라피스 라줄리의 고대 산지는 오로지 힌두쿠시산맥 일대이므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고대문명의 장거리 교역망을 복원할 수 있었다.

필자는 서론에서 ‘실크 로드’가 언제 열렸느냐하는 문제에 논란이 있고 그 연원을 규명하려면 언제부터 실크 로드와 ‘교역과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 맥락에서 기원전 3000년에 라피스 라줄리 교역망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집트까지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실크 로드 개시연대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준다. 나아가 라피스 라줄리 장거리 교역망은 수요자, 중개자, 공급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카자노바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라피스 라줄리는 원산지에서 가장 먼 곳에서 오히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량 소비되었다.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수메르와 이집트의 왕실 또는 신전 구성원처럼 극소수의 기호층(嗜好層)을 겨냥한 사치품이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고대에도 극소수 상층부 인사들의 기호에 따라 세계적 규모의 장거리 교역망이 편제되었고 공급량 또한 결정

53) Lamberg-Karlovsky, C. C., *op. cit.* p. 228.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교역 양상을 볼 때, 같은 중심지라 하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저지대의 일차국가와 이란 고지대의 이차국가 간에는 비대칭적 관계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생태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장거리 교역로의 변동에서 보듯이, 막대한 잉여 식량 자원을 거머쥔 일차국가의 수요변동에 따라 이차국가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다시 이차국가의 산업구조 재편됨에 따라, 원료공급지에서 공급되는 품목과 양이 정해지는 일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이처럼 각각의 개별 문명들은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상호작용 속에 유지되었고 또 한 문명의 흥망성쇠가 다른 문명의 흥망성쇠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다.

소비지 → 중개지 → 공급지 순으로 연동되는 고대 세계 분업체계는 중심부 → 반주변부 → 주변부의 순으로 연동되는 근대 세계 분업체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장거리 교역에서 중앙아시아 원산지와 직교역을 추구하는 소비 국가와 그것을 억제하려는 중개 국가 간의 갈등과 인더스문명의 붕괴 같은 요인들로 동방 교역로가 막히게 되자, 그 대안으로 아나톨리아 반도, 레반트, 에게해가 새로운 원료공급지로서 급부상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메소포타미아 남부 저지대 도시국가들의 세력이 약화되자, 새로운 교역 루트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중·상류의 바빌론·아수르 같은 도시국가들이 급부상하여 패권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근대 무역 체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세계체제가 과연 5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이전인 5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자연히 품게 된다. 세계체제가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단기론자들(短期論者, short chronologists)은 세계체제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역사상 단 한 번 발생했다고 본다. 반면에 5000년 전부터 세계체제의 맥아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장기론자들(長期論者, long chronologists)은 16세기 이전에도 유럽 이외 지역에서 세계체제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근대 사회의 구조적 '허약성(fragility)'때문에 붕괴하였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논쟁은 이른바 '근대성(modernity)'이 오로지 16세기 서유럽에서만 나타났던 특수한 현상이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즉 기원전 3000년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유라시아대륙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교역망도 형성되었다. 잭 구디(Jack Goody)의 말처럼 이 시기에 '유라시아 기적(Eurasian miracle)'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는 라피스 라줄리 장거리 교역망이 청동기시대 세계체제가 이미 존재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

라피스 라줄리 장거리 교역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점은 무슨 까닭으로 그토록 넓은 공간에서 라피스 라줄리가 유통되었는가에 관한 의문이다. 사치품의 속성상 라피스 라줄리에서 상징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이외에 어떤 실용적 가치를 찾기 어렵다. 왜 수메르와 고대 이집트의 왕실과 사제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다지 쓸모도 없는 비싼 사치품을 구하려 했던 것일까? 이와 정반대로 왜 동아시아 고대 사회에서는 라피스 라줄리에 대해 수요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선사시대는 물론 선진시기 중국에서도 라피스 라줄리 유물이 출토된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고대 사회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심지어 라피스 라줄리 산지와 가깝고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속성이 많은 북방 초원 지역의 고대문명에서조차, 터키석이나 홍류석(pyrope)에 비해 라피스 라줄리 유물이 발견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주지하듯이 중국인의 옥에 대한 선호(選好)는 멀리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연원이 깊다. 그중에서도 타림분지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호탄옥(和田玉, Khotan)은 중국인들이 예로부터 옥 중에서도 최상으로 치는 옥이다. 그리고 하남성 은허(殷墟)의 부호(婦好)의 무덤에서 호탄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역사시대 초기부터 이미 호탄옥의 장거리 교역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호탄과 라피스 라줄리가 생산되는 바다흐산이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이다. 곤륜산(崑崙山) 너머에 바다흐산이 있고, 또 조금 돌아가지만 카슈가르(喀什地區) 교역로를 따라가면 라피스 라줄리 광산에 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동아시아 고대 유적에서는 라피스 라줄리가 출토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조사 중이라 단언하기 힘들지만, 동아시아 사회에 라피스 라줄리가 최초 진입했던 시기는 중국에서 소그드인이 깊숙이 활동하던 시기와 겹치고 사상적으로는 불교가 중국 사회에 확산하던 시기와의 관련이 있는 듯하다.

사실 고대 수메르인과 이집트인이 라피스 라줄리에 깊은 애착을 느꼈던 이유나, 고대 중국인이 라피스 라줄리에 무관심했던 이유나, 결국 해당 사회의 기호나 욕망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필자는 고대 서아시아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에서 특정 광물에 대해 탐닉하고 무관심했던 이유를 자연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특정 사회의 기호나 취향을 헤아려 보려면 해당 사회의 물질적 토대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의 가치관, 우주론, 종교 등 정신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이해해야만 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라피스 라줄리가 선호되었던 상징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배경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謝辭 : 고대 라피스 라줄리 교역에 관해 일문으로 작성된 논문들을 필자에게 알려주시고 보내주신 교토(京都) 여자대학의 오영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사계절, 2010.
 문희수, 『보석, 보석광물의 세계』, 자유아카데미, 2010.
 발레리 한센(저), 류형식(역), 『실크 로드 7개의 도시』, 소와당, 2015.
 수전 윗필드(외 저), 이재황(역), 『실크 로드』, 책과함께, 2019.
 이매뉴얼 윌러스틴(저), 나종일(외 역), 『근대세계체제』 1, 까치, 2판, 2013.
 장 길렌·장 자미트(저), 박성진(역), 『전쟁 고고학: 선사시대 폭력의 민낯』,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 高宮いづみ, 「前4千年紀ナイル川下流域におけるラピスラズリ交易について」, 『西アジア考古学』 2, 2001.
- 工藤悠大, 「イラン高原におけるラピスラズリ交易: 後期銅石器時代から前期青銅器時代にかけて」, 『筑波大学
先史学・考古学研究』 26, 2015.
- 石黒孝次郎, 「ラピス・ラズリ考」, 『オリエント』 20: 1, 1977.
- 川又正智, 『漢代以前のシルクロード—運ばれた馬とラピスラズリ』, 雄山閣, 2006.
- Adams, Robert (with H. J. Nissen), *The Uruk Countryside: The Natural Setting of Urban Societ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 Aleksandrov S. M. & Senin V. G. "Genesis and composition of lazurite in magnesian skarns," *Geochemistry International* 44, 2006.
- Algaze, Guillermo, "Initial Social Complexity in Southwestern Asia: The Mesopotamian Advantage," *Current Anthropology* 42: 2, 2001.
- Ball, Warwick, "Following the mythical road," *Geographical* 70, 1998.
- Blaise, Jacques, Cesbron, Fabien, "Données minéralogiques et pétrographiques sur le gisement de lapis-lazuli de Sar-e-Sang, Hindou-Kouch, Afghanistan," *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Minéralogie et de Cristallographie* 89: 3, 1966.
- Breniquet, Catherine, "Early wool of Mesopotamia, C. 7000~3000 BC, Between prestige and economy," In: Wolfram Schier and Susan Pollock (eds.), *The Competition of Fibres*, Oxbow Books, 2020.
- Bulgarelli, Grazia, "Tepe Hissar, Preliminary Report on a Surface Survey," *East and West* 24: 1/2, 1974.
- Casanova, Michèle, *Le lapis-lazuli, la pierre précieuse de l'Orient ancien: gisements, production, circulation, des origines au début du second millénaire avant J.-C.*, CTHS, 2013.
- Childe, Gordon, "The Urban Revolution," *The Town Planning Review* 21: 1, 1950.
- Church, Sally, "The Eurasian Silk Road: Its historical roots and the Chinese imagination," *Cambridg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 2018.
- Cleuziou, Serge and Tosi, Maurizio, Black boats of Magan: some thoughts on Bronze Age water transport in Oman and beyond from the impressed bitumen slabs from Ra's al-Junayz, *South Asian Archaeology* 271, 1994.
- Cunliffe, Barry, *By Steppe, Desert, and Ocean: The Birth of Eur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Dubin, Lois Sherr, *The Worldwide history of Beads*, Thames & Hudson, Second edition, 2009.
- Frank, Andre Gunder, Gills, Barry, *The World System: Five Hundred Years or Five Thousand?*

- Routledge, 1993.
- Hafford, William, "Hanging in the Balance," *Expedition* 47: 2, 2005.
- Hafford, William, "Weighing in Mesopotamia: The Balance Pan Weights from Ur," *Akkadica* 133: 1, 2012, 2005.
- Herrmann, Georgina, "Lapis Lazuli-The Early Phases of its Trade," *Iraq* 30: 1, 1968.
- Jarrige, Jean-François, "A propos d'un foret à tige hélicoïdale en cuivre de Mundigak," In: *De l'Indus aux Balkans: Recueil à la mémoire de Jean Deshayes*, Jean-Louis Huot, Marguerite Yon, Yves Calvet (ed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1985.
- Keisch, B. and Callahan, R. C., "Sulfur Isotope Ratios in Ultramarine Blue: Application to Art Forgery Detection," *Applied Spectroscopy* 30: 5, 1976.
- Kenoyer, Jonathan, "Lapis Lazuli: Beadmaking in Afghanistan and Pakistan," *Ornament* 15: 3, 1992.
- Kohl, Philip, "The Balance of Trade in Southwestern Asia in the Mid-Third Millennium B.C.," *Current Anthropology* 19: 3, 1978.
- Lamberg-Karlovsky, C. C., "Trade Mechanisms in Indus-Mesopotamian Interrel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92: 2, 1972.
- Law, Randall, "Evaluating Potential Lapis Lazuli Sources for Ancient South Asia using Sulfur Isotope Analysis," In: *My Life is Like the Summer Rose: Maurizio Tosi e l'archeologia come modo di vita*, C.C. Lamberg-Karlovsky, B. Genito and B. Cerasetti, (eds.), Bar International Series 2690, 2014.
- Majidzadeh Y., "Lapis lazuli and the Great Khorasan Road," *Paléorient* 8: 1. 1982.
- Mederos, Alfredo and Lamberg-Karlovsky, C. C., "Converting currencies in the Old World," *Nature* 411, 2001.
- Neiburger, E. J. and Spohn, Don, "Prehistoric money," *Central States Archaeological Journal* 54: 4, 2007.
- Nikbakht, T. Kakuee, O., Lamehi-Rachti, M., "Ionoluminescence spectroscopy and microscopy of lapis lazuli," *Journal of Luminescence* 181, 2017.
- Nöller, Renate, Feldmann, Ines, Kasztovszky, Zsolt, Szőkefalvi-Nagy, Zoltán and Kovács, Imre, "Characteristic Features of Lapis Lazuli from Different Provenances: Revised by μ XRF, ESEM, PGAA and PIXE," *Journal of Geological Resource and Engineering* 7, 2019.
- Parkinson, William and Galaty, Michael, "Secondary States in Perspective: An Integrated Approach to State Formation in the Prehistoric Aegean," *American Anthropologist* 109: 1, 2007.
- Potts, T. F., "Patterns of trade in third-millennium BC Mesopotamia and Iran," *World Archaeology*

- 24: 3, 1993.
- Powell, Marvin, "Money in Mesopotamia,"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39: 3, 1996.
- Renfrew, Colin and Bahn, Paul,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Thames & Hudson, 7th edition, 2016.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rt of the First Cities: The Third Millennium B.C. from the Mediterranean to the Indus*,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3.
- Tosi, Maurizio, Bulgarelli, G. M., "The stratigraphic sequence of square DF 88/89 on south Hill, Tappeh Hesār," In: *Tappeh Hesār: Report of the Restudy Project, 1976*, R. H. Dyson and S. M. Howard (eds.), Monografie di Mesopotamia, Firenze, 1989.
- Vidale, Massimo and Lazzari, Alessandra, *Lapis Lazuli bead making at Shahr-i-Sokhta-Interpreting: Craft Interpreting Production in a Urban Community of the 3rd Millennium bc*, ISMEO, Edizioni Antilia, 2017.
- Warburton, David, "Integration by Price in the Bronze Age," In: *South Asian Archaeology 2007: Proceedings of the 19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outh Asian Archaeology, Ravenna, Italy (2-6 July 2007)*, Dennys Frenez and Maurizio Tosi (eds.), BAR International Series 2454, 2013.
- Warburton, David, "Marchés dans l'Égypte Ancienne, In: *Histoire des représentations du marché*, Guy Bensimon," (éd.), M. Houdard, 2005.
- Woolley, Leonard, *Ur Excavations II: The royal cemetery*, Publications of the Joint Expedition of the British Museum and the Museu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o Mesopotamia, 1934.
- Woolley, Leonard, *Ur Excavations IV: The Early Periods*, Publications of the Joint Expedition of the British Museum and the Museum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o Mesopotamia, 1954.
- Wright, Henry, Johnson, Gregory, "Population, exchange, and early state formation in southwestern Iran," *American Anthropologist* 77: 2, 1975.
- Wyart, J., Bariand, P., Filippi, J., "Lapis-Lazuli from Sar-e Sang, Badakhshan, Afghanistan," *Gems & Gemology* 17: 4, 1981.
- Pope, Hugh, "The Silk Road: A romantic Description?" *The Globalist* (<https://www.theglobalist.com/the-silk-road-a-romantic-deception>, 2020년 10월 13일 참조).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4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Lapis Lazuli Road: Silk Road before Silk Road

Park, Seong-Jin*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long-distance trade between ancient civilizations, focusing on Lapis lazuli. According to what is known to date, Lapis lazuli raw materials, which were used as luxuries by elites of ancient civilizations such as Indus civilization, Elam civilization, Mesopotamian civilization, and Egyptian civilization, were all mined in ancient mines distributed around Hindu Kush in Central Asia. The distance traveled after mining is up to 4,000 kilometers. This means that a wide-area trade network was already established from the Pamir Plateau to Egypt in Central Asia before 3000 BC. Therefore, Silk Road was opened much earlier than in the 2nd century BC, when the Silk Road was generally believed to have been first opened, and I named it Lapis Lazuli Road. Meanwhile, there are three main routes from Central Asia to Mesopotamia, two of which are land and the other is sea routes. Initially, Lapis lazuli trade was mainly along the land trade route, but it is estimated that sea trade routes were preferred to transport goods safely in the later period as trade volume increased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changed.

In terms of trade patterns, it is assumed that there was an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states of the Mesopotamian lowlands and the secondary states of the Iranian highlands, which is fundamentally attributed to the ecological differences in the region. As seen in the long-distance trade route change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secondary country was reorganized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secondary country was reorganized, resulting in a series of reactions to the supply of raw materials. As such, each individual civilization was maintained in interaction without a self-complete structure, and the rise and fall of civilization seriously affected the rise and fall of other civilizations. The ancient world division system, which is linked in the order of consumption area → middle production area → supply area, is similar to the modern world division system, which is linked in the order of central → semi-periphery → periphery. Since 1990, there has been a debate in international academia over whether the world

* Research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system started 500 years ago or more than 5,000 years ago, and the Lapis Lazuli road discussed in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at the world system was formed 5,000 years ago, or 3000 BC.

[Keywords] Lapis Lazuli, Civilization, trade, World System, Silk road